대한건설협회대구광역시회신임회장

이홍중 화성산업(주) 사장

“회원사 화합 도모, 지역 건설 경기 회복에 최선”

‘건설업은 어느 산업보다 오래된 산업이면서 동시에 인텔리젠트 홈, 유비쿼터스시티에서보듯이미래첨단산업의 특성도있습니다. 끊임없이새로운수요를 찾아내고그에맞는기술을개발하고집중한다면앞으로도매력있는산업으로영원히지속될것입니다.”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의 신임 회장으로선임된이홍중화성산업사장은이제건설산업도‘ 기술경영 이필요한시기라고 역설한다. 기업의 생존이 기술과 디자인, 기획력 등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것이다.

그러나, 이홍중 회장은 현재 지역의 건설업현실이너무나어려워미래를준비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건설 경기가 나빠지고경쟁이치열해지면서기술력개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중소기업이면서도 특화된 기술력으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회사들이 많은 것을 보면 ‘ 기술력은 곧 생명줄 임을 실감하며, 어렵더라도 신기술을 발굴하고 보급하는데힘써야한다고강조한다.

그렇다면 대구 지역의 건설 경기는 어느 정도일까? 이홍중회장은대구지역의건설업 현실을 수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그에 따르면 199?년 전국 기성 실적이 78조원 정도일 때 대구는 4조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대구의 기성실적이 전국의 1.7%로급락하였다.“ 지난해전국적으로는103조원의실적을올려 199?년보다 32% 정도 증가하였으나 대구는 1조 7,000억원 정도로 199?년의 4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이이기간에업체수는3배가까이 증가하였으니 다들 어렵다고 할 수밖에없지요.”

이홍중 회장은 이번에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자신을 회장으로 추대한 데는 무엇보다이러한어려운 지역현실을극복하는데 앞장서 달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분석한다.“ 회원들이 저를 선택해주신 데는 크게 두가지뜻이있다고생각합니다. 첫째는최근 10년간 회장선출을위하여3번이나경선을함에따라발생할수밖에없었던 갈등을마감하고이제는회원간에화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갈망이컸다고생각합니다. 둘째는 대구 건설 경기가 IMF 이후9년 동안 침체일로를 걷고 있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있는데지역건설경기회복에최선을다하라는당부의뜻도있습니다.”

대구의건설업장기불황을타개하기위한 방안으로 이홍중 회장이 가장 먼저 꼽는 것은 용적률 인센티브제이다. 이 제도는외지업체들이대구에서재개발사업을 시행할때지역업체를사업에참여시키는 비율에따라용적률을2 5% 정도더올려주자는것으로지역업체들의사업물량을 다소나마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그는건축물의각종인 · 허가시 외지업체들이지역업체들과공동으로시행토록인허가기관에서행정지도하는시책도필요하다고말한다.

그는 특히 향후 대구 지역에서 발주될 대형 공공공사에 지역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혁신도시 건설이 전국적으로 본격 착수되고 대구의 경우도 달성지역에테크노폴리스조성공사, 동대구및 안심지역부도심개발, 지하철3호선, 자기부상열차건설, 고속철도지상화구간주변정비공사등 굵직굵직한공사가많이나올 예정이기때문이다.

한편, 해군시설장교로복무하고바로화성산업에서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40년 간 건설업과 인연을 맺어온 이홍중 회장은 사회활동에도 열성적이다. 비인기종목인 대구시 사이클연맹 회장,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역부회장등을맡아지역사회를위하여 봉사해 왔고, 현재는 대한토목학회 대구 · 경북지회장을맡고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